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기술지도'의 의미

국가종합경쟁력 세계 10위를 지향하는 국가기술지도가 작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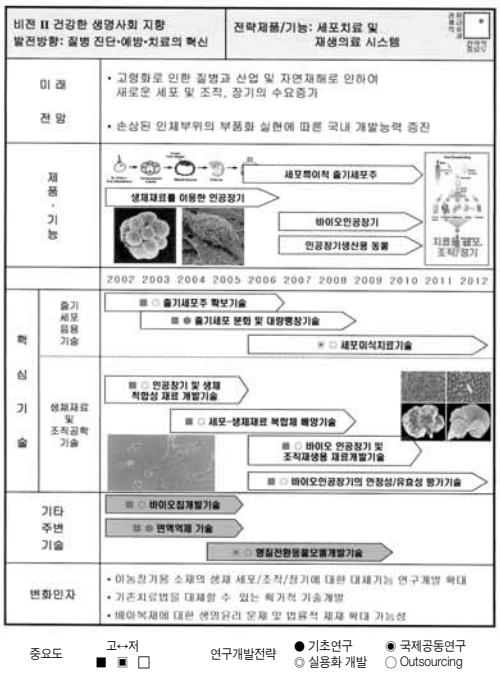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장기적인 비전없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정부자금 5조원과 민간자금 7조원 등 총 12조원의 연구자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없이 투자돼 온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과학기술자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도작성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지도작성에 착수, 7월 국가기술지도 1단계 작업 결과가 국과위에 보고됐다.

지도 기획단은 당시 5대 비전과 49개 전략제품, 97개 세부 핵심기술을 도출, 골격을 세웠다. 이후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 800여 명으로 작업팀을 구성, 도출된 핵심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지도 작성에 착수했다.

이렇게 완성된 기술지도는 국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핵심 및 전략기술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밑그림이 작성됐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된 기술지도는 핵심기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기술의 특성, 기술의 실현시기, 우리의 기술수준, 기술확보방안, 개발목표와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5대 비전의 하나인 정보 · 지식 · 지능화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전략적 제품으로 선정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경우 유무선방송 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물론 현재보다 수십에서 수백개 빠른 인터넷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술지도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변화인자로 자유무역, 무한경쟁체제의 기반인 e커머스, 노령화 사회를 위한 e호스피털 등을 꼽고 있다.



▲ 세포치료 및 재생의료 시스템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 지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전략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도작성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연구개발에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기술지도가 완성본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기술이 눈깜짝할 사이에 바뀌기 때문에 현재 핵심기술로 꼽혔다 하더라도 다음해에는 필요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관계부처가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로 국가기술지도기획단, 비전별 위원회, 핵심기술별 작성팀 등을 구성, 매년 정기적인 수정 · 보완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